

올해 1분기 전남 인구감소지역 16곳...전국 89곳

구례군 체류 인구, 등록인구의 18.4배...전국 최고 남성 比 여성 많아·60세 이상 비중·체류 일수 3.2일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전남은 구례군 등 16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구례군의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18.4배로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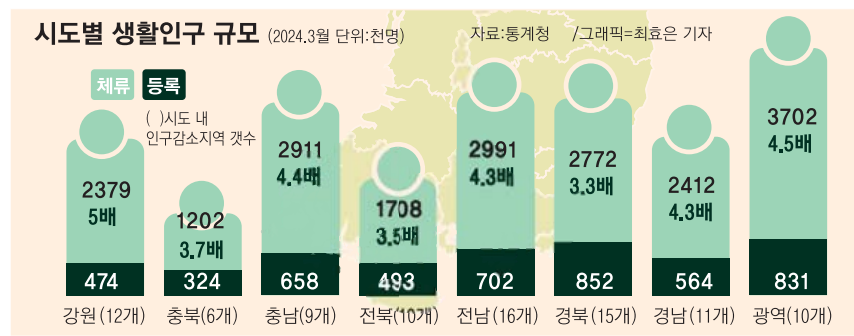
25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올해 1분기(1-3월) 생활인구를 최초로 선정했다.

그 결과, 전남 인구감소지역 16곳(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해남·영암·함평·영광·장성·완도·진

도·신안군)의 생활인구 369만2천471명 중 체류 인구는 209만500명으로 등록인구(67만6천755명)의 4.4배 수준이다.

생활인구는 실제 그 지역에 등록된 인구와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해 체류하는 체류인구(월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를 합한 개념이다.

전남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가 많았다. 특히 구례군은 체류 인구가 등록인구의 18.5배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



며, 담양군(7.15배)이 그 뒤를 이었다. 구례 지역에 방문객이 많았던 이유로 지난 3월에 있던 꽃 축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 지역의 체류 인구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며, 연령대에서는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평균 체류 일수는 3.2일이고 숙박한 경우 평균 숙박 일수는 4.2일로 기록됐으며 평균 체류 시간은 11.5시간으로 분석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구례지역은 1-2월까지는 3~4배 수준을 이어오다 지난 3월 갑자기 체류인구가 늘었다"며 "방문객이 늘어난 이유로 3월에 있던 벚꽃·산수

유 축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 총인구 감소, 지역 간 인구 유지 경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7곳을 선정해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선정해 발표했고,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생활인구를 선정한다.

이번 선정에 활용된 자료는 행안부의 주민등록과 법무부의 외국인등록 정보를 이동통신 자료와 가명·결합한 것으로, 통계청에서 이를 활용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통계적 특성, 활동 특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산출했다.

행안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필요 기

관에 제공해 인구감소 대응 관련 사업 및 시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분기 생활인구 선정부터는 신용카드 이용정보 및 신용정보사의 직장 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한 후 통계청이 분석하도록 제공해 구체적인 체류인구 특성을 선정한다.

6월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에서 수행하는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특성 분석' 연구 또한 조속히 추진해 더 세부적인 체류 유형을 인구감소지역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역 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영양 간식 '햇고구마' 맛보세요. 농협유통이 하나로마트에서 영양 성분이 풍부해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인기가 높은 '햇고구마'를 선보이고 있다. (농협유통 제공)

지역 중기·소상공인 지원기관 협력 강화

중기청, 7회 중소기업협의회...시·노동청 등 참여 정책 공유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회가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 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5일 "나라기운 광주통합청사 1층 회의실에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지원협의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주요 안건으로 기관별 핵심과제 및 협조사항 등을 공유했다. 먼저 광주·전

남지방중기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한 내용 설명 및 관계기관과의 협회 사항을 논의했고 이어 광주시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발표 및 참석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소기업 지원 확대 정책모델' 제도를 소개했고 광주·전남지방방무청의 산업지원인력 복무관리 및 보충역 채용 사항에 대한

지역기업 안내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협력 사항을 공유했다.

이날 외부전문가로 참여한 광주시 문인 북구청장은 '경제도시 1번지 회복과 상생, 그리고 도약의 북구'라는 주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북구청의 노력과 정책을 설명하고, 지원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조종래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정부는 최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적극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자체와의 우수한 협업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 IRP 수익률 은행권 1위

찾아가는 1:1 맞춤형 컨설팅 주효

광주은행이 올해 2분기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 운용 수익률 부문에서 5분기 연속 은행권 1위를 달성했다.

25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광주은행의 2분기 IRP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 수익률은 연 15.8%로 은행권 전체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6대 시중은행의 평균 수익률인 13.2%보다 2.6% 포인트 높았다고 광주은행은 덧붙였다.

광주은행의 이 같은 성과는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가 뒷받침했다.

은퇴와 노후를 대비하는 고객의 자산 관리를 위해 더 프라임 에이지 센터를 열고 프라임 PB센터를 확대·운영하는 등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자 자산관리 전문가를 영입, 'The PrimeAge Center'를 출범했다.

또한 Prime PB센터, 봉선금융센터(WM 라온지) 등 전문 PB센터와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고객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퇴직연금 자산운용과 수익률 강화를 위해 수익률 관리 전문가를 채용해 시행중인 '찾아가는 1:1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가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배인명 광주은행 신탁연금부장은 "급변하는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객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적기에 추천, 자산배분율을 적극 조정한 전략이 주효했다"며 "노후 자산 확보와 은퇴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유담 호텔, 개관 4주년 '빅4 이벤트'

8월1일 생일고객 여행키트 증정·축하맛집시 숙박권 추첨 등

광주 상무지구 중심에 위치한 유담 부티크호텔&레지던스가 개관 4주년을 기념해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25일 유담그룹에 따르면 올해 개관 4주년을 맞아 4가지 혜택과 프로모션의 '빅4 이벤트'를 준비해 고객들에게 선보인다.

먼저 객실 1박, 플로라 조식 뷔페, 여행 키트로 구성된 특별 패키지를 파격적인 가격대에 준비했다.

해당 패키지는 호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경품 이벤트도 연다. 내달 1일부터 16일까지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축하

태이션은 물론 다양한 핫 디쉬 및 디지털 라인을 한층 강화해 더욱 다양한 메뉴들을 만날 수 있다.

정필립 유담 부티크호텔&레지던스 총지배인은 "고객의 성원으로 4주년을 맞이한 만큼 앞으로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모든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호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8월1일 개관한 유담 부티크호텔&레지던스는 광주시 최초의 레지던스형 호텔이다.

에너지 절약 및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절약 실천요령

- ▶ 3시간 이내 적정온도 유지하기(여름철 26도, 겨울철 20도)
- ▶ 불필요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 선풍기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속캠페인

건강한 남도의 숨결이 담긴 문화관광형 시장, 여기는 양동시장입니다!

1910년대에 광주교 아래 백사장에서 달마다 2일과 7일에 장이 열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인 1940년, 신사 주변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장이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69년 12월 이전에는 시영시장으로 운영되다가 그 후부터 민영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1972년에 시장 옆에 북개사가 생겼고, 지금은 현대적인 시설로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4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 기타 물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340여 개 있습니다.

***양동시장은 특히 계수용품이나 혼수용품으로 유명하며 4월-9월에는 첫째·셋째 주 일요일이 정기휴일이고, 10-3월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시장구분 : 상설시장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로 238
개설일 : 공식개설일 1973년

· 점포수 : 260곳
· 시장면적 : 10,582㎡

· 주요취급품목
- 생식품(야채, 청과, 생선), 가공식품(반찬, 젓갈) 등
◆ 양동시장 상인회 : 062-366-0884

양동시장 둘러보기





건강한 남도의 산지 직송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전국 우수 전통시장 인생넘치는 시장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광주광역시 서구 GWANGJU CITY SEOGU 문의 : 062)650-2099